

어린이 책꽂이



▲거지말 하고 싶지 않았어! = 독일 태생의 아동문학가 아네테 노이바우어의 장편동화. 전학간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풍을 떨었다가 거지말의 늪에 빠져 고통받게 된 소년 '루카스'의 이야기이다. 복잡하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적 이야기로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감동을 준다. <미래아이들·9000원>



▲딱북이 미사일 = 목포출신 김영 시인의 동시집. 모두 28편의 동시가 실렸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 생생한 심리묘사가 탁월하다. 특히 어른들 세계의 갈등과 전쟁을 꼬집은 표제작 '딱북이 미사일'은 진지한 메시지와 함께 기발한 상상력이 빛나는 작품이다. 공부에 지친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포착해냈다. <푸른책들·8500원>



▲해초의 대여행기 왕오천축국전 =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문명탐험기인 신라 승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재미있게 풀어 설명한다. 가급적 원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쉬운 풀이를 더했다. 디지털 복원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와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자료까지 사진과 자료를 풍부하게 실었다. <두레아이들·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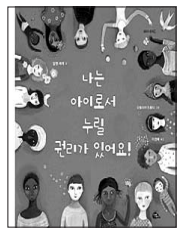
▲내 친구 공룡 비즐리 이야기 = 미국작가 올리버 버터우스가 어린 시절 막연하게 상상해 봤을 '살아 있는 공룡'을 소재로 꾸민 이야기. 미국의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년 네이트는 어느 날 뒷장에서 암탉이 낳은 큼직한 알을 발견하고, 정성껏 돌봐 부화시킨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공룡이 태어난 것이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서커스 이야기 = 20여 년까지만 해도 전국의 시장이나 극장에서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한 우리 서커스를 되새기는 그림책이다. 사진작가 국수용씨의 흑백 사진을 중심으로 1925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의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역사를 간추렸다. <시공주니어·1만5000원>



▲내 동생은 외계인 푸파 = 우리말과 우리그림책 네번째 권.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엄마로부터의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등 복잡한 심리를 '엄마가 괴물 외계인을 낳았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표현했다. 갓난아이와 겪는 천방지축 일상과 기싸움이 재밌다. <장수하늘소·1만원>



▲나는 아이로서 누릴 권리가 있어요! = 프랑스에서 '튀 튀 펀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알랭 세레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아이로서 누릴 당연할 권리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책의 내용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래이야기·1만1500원>

▲지도 없이 떠나는 101일간의 수학의 세계 = 수학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일상생활 속 숨겨진 수학원리를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상식을 넓혀준다. 하나를 뜻하는 세계 최초의 숫자 모양은?, 염색과 카드가 황금비율인 까닭 등 수학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 101가지를 뽑았다. <영교출판·1만1000원>

비즈니스
박범신 지음



스스로 "쓰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게 최근 나의 딜레마다"라고 밝힐 정도로 왕성한 창작욕을 보여주고 있는 박범신(64·사진)의 장편소설 '비즈니스'가 나왔다. 지난 4월 '은교'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내는 장편이다. '박씨의 이번 소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갈망의 삼부작'으로 일컬어지는 세편의 장편소설 '홀라체' '고산자' '은교'를 연이어 발표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과 내면적 갈망을 탐구하는 소설을 써왔던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좀더 현실 비판적 시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점은 초기 강력한 사회비판적 소설을 썼던 저자의 초기 작품에서 보인 모습이지만, 그 보다 한층 심화된 모습으로 다가간다. 소설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은 간단 명료하다. 작품 무대인 서해안의 M시는 수십km의 방조제 공사로 매립지가 조성된 도시다. 새만금을 연상시키는 그곳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농축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M시는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부각되면서 눈부신 발전을 한다. 공업지구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로가 놓이고, 이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뚜렷이 구분된다. 신구의 경계는 성공과 실패, 빈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저자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몸을 팔게 된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믿고 살던 스무 살의 순수한 '나'가 아니다. 그런 '나'의 고객으로 등장한 '그'는 M시의 신시가지 개발에 가장 피해를 본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이다. 그는 M시를 이끌어가는 고위층과 부자들의 집만 털면서 신출귀몰하게 신시가지지를 휘젓고 다닌 '타잔'이라 불린다.

베트남 지압 장군의 승리 비결

3불(不) 전략
이병주 지음



20세기 최고의 전략가, '붉은 나폴레옹'이라 불리며 20세기 최고의 전략가로 베트남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보 구엔 지압. 그의 위대한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 '3불(不) 전략'이 출간됐다.

IG경제연구원 등에서 전략과 마케팅을 연구했던 이병주씨가 쓴 책은 지압 장군의 놀라운 승전의 기록을 살펴보고 오늘날 비즈니스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승자의 조건' 즉, 승자들의 DNA를 뽑아내기 위한 작업을 통해 강대국을 이긴 군대나 거대기업을 무너뜨린 혁신기업에서는 예외없이 구성원들의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저자가 지압 장군의 승리 비결에서 뽑아낸 3불(不) 전략은 '회피 전략', '우회 전략', '협박 전략'. 저자는 이를 오늘날 비즈니스 전략과 접목해 '회피 전략-시점 차별화', '우회 전략-시장 차별화', '협박 전략-사업 차별화'로 재구성해 역사 속 전쟁과 마케팅 전쟁 사례들을 눈 앞에 생생하게 펼쳐 놓는다. 여기에는 우리 역사 속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통쾌한 승리 중의 하나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도 포함 되어 있다.

저자는 지압 장군의 '3불 전략'을 통해 현대사회의 경쟁에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승패는 무기보다 앞서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자기확신으로 무장하라고 충고한다.

<가디언·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크로스비 가문 3대의 이야기

팅커스-뎀장이들
폴 하딩 지음



뉴욕타임스는 올해 플라치상을 받은 미국 작가 폴 하딩(43)을 '미스터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그가 작가가 된 과정도, 첫 소설이 무어곡집 끝에 출간돼 플라치상을 받은 과정도 한 편의 '신데렐라 스토리'라 할만하기 때문이다.

그의 데뷔작이자 수상작인 '팅커스-뎀장이들'가 번역 출간됐다. 소설은 시계 수리공 조지, 팜잡이이자 행상인이었던 아버지 하워드, 목사였던 할아버지까지 크로스비 가문 3대의 이야기를 그렸다.

여든이 넘어 병상에 누운 조지가 죽음을 맞이까지 8일간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가족의 애뜻함을 되새기고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한다.

조지는 병상에서 마치 환자를 보듯,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간질을 앓았던 아버지 하워드에게 손가락을 물려 심한 상처를 입었고, 조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을 한다. 이를 알게 된 하워드는 스스로 마차를 몰고 멀리 필라델피아로 떠난다. 하워드에게도 정신병원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다.

보잘 것 없지만 선량한 사람들의 슬픈 가족사를 그린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하며 명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작가는 특히 섬세한 묘사와 음악적인 문체로 극찬을 받았다.

<21세기북스·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자·석가모니 지혜를 빌리다

축의 시대
카렌 암스트롱 지음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엘리아 등 영적, 철학적 현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 700년 남짓한 시기를 인류 정신사에서는 위대한 '창조의 시대'라 부른다.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의 유대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 등 인류 정신의 자양분이 된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것도 이때였다.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축의 시대'는 인류의 창조성이 가장 뜨겁게 폭발했던 이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축의 시대'(Axial Age)는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저서 '역사의 기원과 목표'(1949년)에서 제시한 문명사적 개념이다.

저자에 따르면 축의 시대의 영적 혁명은 혼란, 이주, 정복 등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꽃피우기까지 중국과 인도, 그리스, 중동 4개 지역은 시기는 다소 달랐지만 대부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전쟁과 같은 혼란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저자는 또 '축의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인간의 비참함을 함께 슬퍼하는 공감과 자비의 정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테러 등 폭력과 증오로 점철된 우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교양인·3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세명한의원, 사인성형외과, 바다로, 대농판넬산업, 대명산장어, 생고기촌구이박사, 대도식당, 밀밭칼국수, 좋은날당구장, 현대축산, 롯데콜라텍, 페인팅스토리, 여행백화점, 작명대가동양철학원, 만연유기, 수목부동산, 중흥공인중개사, 뚝강아지, 신포우리만두, 끈노리, 화필여로, 마포眞 갈매기, 온누리헤어, 광주화랑, 신신예술의집, 일심공인중개사